

노년기 마음읽기 능력과 사회적 적응*

최 현 옥

충북대학교 인간심리연구소

김 혜 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마음읽기 능력의 변화와 개인차 그리고 사회적 적응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서 60세 이상의 노인 103명을 대상으로 마음읽기과제와 인지과제, 성격검사, 사회활동 참여도, 사회적 적응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노인들의 마음읽기 능력은 인지능력과 높은 상관관을 보였으나 친화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의 마음읽기 능력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밖에 친화성과 외향성, 경제상태, 친목참여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음읽기를 잘하는 노인들은 주변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고 그에 적절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음으로 인해 사회적 적응을 잘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 다른 사람의 마음상태에 적당히 둔감한 것이 오히려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사회에 만연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노인들의 관계축소로 인한 외로움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노년기, 마음읽기, 인지능력, 친화성, 사회적 적응

* 이 논문은 2012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김혜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번지

E-mail: hrghim@chungbuk.ac.kr

노년기는 은퇴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가정 내에서의 역할 상실로 인해 인생의 다른 어떤 때보다 심리적 고립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시기이다. 이에 노인들은 축소된 관계를 보상하고 보다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취미 활동을 배우기도 하고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한다. 그러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축소된 관계를 보상받고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꼭 필요한 능력 중의 하나가 ‘마음읽기(mindreading)’ 능력이다.

마음읽기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상태를 추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믿음(belief), 바람(desire), 의도(intention)와 같은 마음상태가 행동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마음이론(Theory of Mind)의 발달과 주의와 억제통제 등의 실행기능의 발달 그리고 마음상태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발달시킬 수 있는 언어능력 등 인지능력의 발달이 동반되어야 한다(Astington & Jenkins, 1999; Carlson & Moses, 2001).

마음읽기 능력의 발달이 이처럼 인지능력의 발달과 관련된다면, 기억력 감퇴와 실행기능의 저하가 불가피한 노년기에는 마음읽기 능력 또한 저하될 것인지에 의문을 갖고 Happé, Winner, 그리고 Brownell(1998)은 청년집단과 노인집단의 마음읽기 능력을 비교해 보았다. 이들은 평균 73세의 노인들과 평균 21세의 청년들에게 선의의 거짓말(white lie), 풍자(Irony) 등 이야기 속 주인공의 마음상태를 추론하는 과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노인들의 마음상태 추론 능력이 청년들에 비해 더 우수한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노인이

되면 인지능력은 비록 저하되지만 살아오는 동안 쌓아온 풍부한 사회경험과 삶의 지혜 등으로 인해 마음읽기 능력은 증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루어진 Maylor, Moulson, Muncer, 그리고 Taylor(2002)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노인들의 마음읽기 능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Happé 등이 사용한 이야기 과제를 청년집단(평균 19세)과 초기노년집단(평균 67세) 그리고 후기노년집단(평균 81세)에게 실시한 결과, 마음상태 추론이 필요하지 않은 통제과제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마음읽기 과제에서는 청년집단이 중년집단이나 노인집단보다 오히려 더 나은 수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 역시 노인들의 마음읽기 능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저하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German & Hehman, 2006; Leslie, Friedman, & German, 2004; McKinnon & Moscovitch, 2007; Sullivan & Ruffman, 2004; Wang & Su, 2006).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현옥과 김혜리(2012)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마음읽기 과제 수행이 대학생들에 비해 저하되었으나, 젊은 성인이나 중년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대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헛디딤(faux pas)과제, 즉, 이야기 속 주인공이 사실을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는지를 알아본 남송이(2008)의 연구에서도 노인집단의 과제수행이 대학생집단보다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마음읽기 능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저하된다고 보고한 연구자들은 노인들의 기억력과 실행기능 등 인지능력의 저하가 마음읽기 능력의 손상을 가져온 것이라고 해석하였다(Leslie, Friedman, & German,

2004; Maylor, Moulson, Muncer, & Taylor, 2002; McKinnon & Moscovitch, 2007; Wang & Su, 2006).

마음읽기 능력과 사회적 적응

노년기는 사회적 관계의 불가피한 축소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양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것이 곧 마음읽기의 중요성이 감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노인들도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주변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을 잘 읽고 이해하는 경우에는 그들과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가 자주 어긋남을 느끼며 소외감과 고독감만 더 키우게 될 것이다.

실제로 마음읽기를 잘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잘하고, 또래 간에 인기도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stington과 Jenkins(1995)은 마음읽기 능력이 뛰어난 3~5세 아동들이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의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관찰했으며, 또 다른 연구를 통해 3~4세 아동의 마음읽기 능력이 이후의 계획하거나 역할 할당과 같은 사회적 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알아냈다(Jenkins & Astington, 2000). Lalonde와 Chandler(1995)의 연구에서는 마음읽기 능력이 뛰어난 3세 아동의 경우 4~5명의 친구들과 협력적으로 놀이를 하거나 적절하게 대화를 끝내는 등의 의도적인 사회적 행동(intentional social behavior)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Watson, Nixon, Wilson, 그리고 Capage(1999)의 연구에서는 3~6세 아동의 마음읽기 능력과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전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의 마음읽기 능력과 아동의 인기도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laughter, Dennis, 그리고 Pritchard(2002)의 연구에서는 마음읽기 능력이 뛰어난 5, 6세 아동의 경우 또래 간에 인기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Peterson과 Siegal(2002)의 연구에서도 3~5세의 인기 있는 아동의 마음읽기 능력이 그렇지 못한 아동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의 마음읽기 능력과 인기도가 관계가 있음은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는데, 김혜리와 이숙희(2005)의 연구에서는 8세 아동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 인기도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음읽기 능력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 최현옥과 김혜리(2008)의 연구에서도 마음읽기 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또래지위에 따른 마음읽기 능력간의 관계를 연구한 구재선 등(2008)의 연구에서는 인기집단에 속한 중학생들이 거부집단에 속한 중학생들보다 마음읽기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음읽기 능력과 친사회적인 행동이 관계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는데, Paal과 Bereczkei(2007)는 12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통해 마음읽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협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격특성과 마음읽기 능력

친사회적 행동이나 대인관계 측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성격특성은 외향성과 친화성이다. 외향성은 사교적이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독단적이고, 야망이 있고, 활동적인 특

성으로 대표되는데(Mount, Barrick, & Strauss, 1994), 사회생활에 특히 유용한 성격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외향성이 높은 남자들은 그렇지 못한 남자들보다 처음 만난 여성들과 상호작용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rry & Miller, 2001), 안면표정이나 신체언어 등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단서도 더 잘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ker & Panter, 1988). 그러나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외향성이 낮은 사람들보다 덜 협조적이었으며, 스스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oole, Jager, van den Berg, Vlek, & Hofstee, 2001). 친화성은 좋은 관계의 유지에 대한 관심으로 특징지어지긴 하지만, 협력적인 태도나 온화함만을 나타내는 특성은 아니고 자기 희생적이거나, 의존적인 모습을 함께 포함한다(Judge, Higgins, Thoresen, & Barrick, 1999). 친화성과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친화성이 또래 수용이나 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Jensen-Campbell 등(2002)은 6학년 아동 47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친화성과 또래관계를 조사한 결과, 친화성이 낮은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더 높은 공격행동이나 더 많은 괴롭힘 행동을 보이는 것을 알아냈다. Koole, Jager, van den Berg, Vlek, 그리고 Hofstee(200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친화성이 높은 대학생들이 친화성이 낮은 대학생들보다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협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친사회성이 높은 아동들은 또래보다 마음읽기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선행연구 결과들도 있는데(Astington & Jenkins, 1995; Bosacki & Astington, 1999; Lalonde & Chandler, 1995;

Walker, 2005), 이에 착안하여 Nettle과 Liddle(2008)은 친화성이 결국 마음읽기 능력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친화성과 마음읽기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은 100명의 대학생에게 성격검사를 실시한 후, 이야기를 듣고 주인공의 마음상태를 추론하는 마음읽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친화성과 마음읽기 과제 점수 간에 .48의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Ferguson과 Austin(2010)은 평균 34세의 성인 162명을 대상으로 마음읽기과제(faux-pas task)와 친화성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들 역시 마음읽기과제 수행과 친화성간에 .23의 정적 상관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마음읽기 능력이 뛰어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대체로 사회적 적응을 더 잘하고(Astington & Jenkins, 1995; Jensen-Campbell 등, 2002; Peterson & Siegal, 2002; Slaughter, Dennis, & Pritchard, 2002),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Lalonde & Chandler, 1995; Paal & Bereczkei, 2007), 친화성이 높은 성격특성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Ferguson & Austin, 2010; Nettle & Liddle, 2008).

그렇다면 마음읽기 능력이 뛰어난 노인들 역시 사회적 적응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인가?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노년기 마음읽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마음읽기 능력이 노년기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적응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노년기에 나타나는 마음읽기 능력의 개인차가 인지능력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성인 친화성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마음읽기를 잘하는 노인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음으로써 사회적 적응도 잘하는지를 대인관계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지역사회 노인복지관의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들 중 모집공고를 보고 찾아온 124명의 노인이 실험과 설문에 참가했다. 이중 직접 설문을 작성하지 않은 자료 및 성실하지 못한 응답자료 21부를 제외한 103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노년집단 전체 참가자는 60세부터 85세까지로 모두 103명이 참가하였다. 이중 60대는 31명(평균연령 65.77세)으로, 남자가 14명, 여자가 17명이었다. 70대는 모두 60명(평균연령 74.32세)으로, 남자가 26명, 여자가 34명이었다. 80대는 12명(평균연령 82.58세)으로, 남자가 5명, 여자가 7명이었다.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회활동 참여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과제 및 도구

마음읽기 과제

마음읽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로는 Happé(1994)가 사용한 이상한 이야기 과제 중 선의의 거짓말(white lie), 풍자(Irony), 오해(misunderstanding)과제와 Stone, Baron-Cohen, 그리고 Knight(1998)가 개발한 뽀빠(faux pas) 과제 중에서 3개를 사용하였다. 이들 과제는 모두

참가자의 연령층과 우리 문화를 고려하여 내용을 각색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과제는 2점 만점으로 마음읽기과제의 전체 점수의 합은 12점이었다.

마음읽기과제의 구체적인 예로 ‘선의의 거짓말’ 과제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상대의 기분을 생각해서 거짓으로 좋게 말해주었다는 것을 이해하는지 알아보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모자를 쓰고 와서는 아빠가 사주셨다고 좋아하며 자랑하는 짝꿍에게 예쁘고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주인공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때 실제로는 모자가 예쁘지 않았지만 짝꿍의 기분이 상할까봐 주인공이 거짓말 한 것임을 이해했다면 2점, 거짓말인지는 알지만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1점을 주었고, 실제로 예뻐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했다면 0점을 주었다.

뽀빠 과제란, 주인공이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을 잘 몰라서 실수로 한 말이었음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제이다. 이중 ‘커피’ 과제에서는 식사 후 커피를 마시던 할아버지가 바닥에 커피를 쏟자,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에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에게 커피를 닦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후, 왜 할아버지가 다른 손님에게 커피를 닦아달라고 했는지를 물었다. 이야기 속에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이 있었고 이것이 할아버지가 그 손님을 종업원으로 착각해서 일어난 실수였음을 이해하면 2점을 주었으나, 할아버지가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은 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1

표 1. 노년집단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회활동 참여도

	60대		70대		80대		
	N	%	N	%	N	%	
교육기간	초졸이하	3	9.7	7	11.7	2	16.7
	중졸	5	16.1	15	25.0	3	25.0
	고졸	11	35.5	21	35.0	2	16.7
	대졸	12	38.7	13	21.7	5	41.7
	대학원졸업 이상	0	0	4	6.7	0	0
건강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0	0	0	0	1	8.3
	약간 건강이 좋지 않다	5	16.1	10	16.7	3	25.0
	보통이다	23	74.2	44	73.3	4	33.3
	매우 건강하다	3	9.7	6	10.0	4	33.3
경제	매우 어렵다	0	0	1	1.7	0	0
	조금 어렵다	5	16.1	5	8.3	1	8.3
	보통이다	17	54.8	48	80.0	9	75.0
	전혀 어렵지 않다	9	29.0	6	10.0	2	16.7
자녀와 연락	거의 연락하지 못함	0	0	1	1.7	0	0
	일 년에 3~4번	1	3.2	6	10.0	1	8.3
	한 달에 1~2번	4	12.9	14	23.3	3	25.0
	일주일에 1~2번	12	38.7	26	43.3	4	33.3
	일주일에 3~4번	8	25.8	9	15.0	1	8.3
	매일	6	19.4	4	6.7	3	25.0
친구와 만남	거의 연락하지 못함	0	0	1	1.7	0	0
	일 년에 3~4번	2	6.5	3	5.0	0	0
	한 달에 1~2번	6	19.4	12	20.0	1	8.3
	일주일에 1~2번	15	48.4	24	40.0	5	41.7
	일주일에 3~4번	7	22.6	14	23.3	3	25.0
	매일	1	3.2	6	10.0	3	25.0
이웃접촉	거의 연락하지 못함	1	3.2	3	5.0	2	16.7
	일 년에 3~4번	1	3.2	4	6.7	1	8.3
	한 달에 1~2번	7	22.6	12	20.0	1	8.3
	일주일에 1~2번	10	32.3	20	33.3	3	25.0
	일주일에 3~4번	11	35.5	15	25.0	3	25.0
	매일	1	3.2	6	10.0	2	16.7
친목활동 참여	거의 참여하지 못함	4	12.9	3	5.0	1	8.3
	일 년에 3~4번	5	16.1	11	18.3	1	8.3
	한달에 1~2번 이상	20	64.5	40	66.7	7	58.3
	일주일에 1~2번 이상	2	6.5	6	10.0	3	25.0
여가활동 참여	거의 참여하지 않음	1	3.2	1	1.7	1	8.3
	한 달에 1~2번 이상	0	0	1	1.7	0	0
	일주일에 1~2번 이상	10	32.3	12	20.0	2	16.7
	일주일에 3~4번 이상	20	64.5	46	76.7	9	75.0
전체	31	100	60	100	12	100	

점, 적절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이 없었다고 대답하면 0점을 주었다.

통제 과제

참가자들의 마음읽기 능력의 차이가 실제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야기에 대한 이해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통제과제를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one 등(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과제를 각색하여 사용하였다. 통제과제의 구체적인 예로, '녹두전' 과제에서는 이웃집 할머니를 위해 녹두전을 부쳐 온 주인공에게 자신은 녹두전을 무척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 이야기 내용 속에 무언가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이 없다고 대답하면 1점을 주었고, 그런 말이나 행동이 있다고 대답하면 0점을 주었다. 통제과제는 모두 3과제로, 통제과제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3점이었다.

인지과제

참가자들의 인지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어휘 능력과 실행기능을 측정하였다. 이 중 참가자들의 어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K-WAIS (염태호, 박영숙, 오경자, 김정규, 이영호, 1992)의 어휘문제 소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일반지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 모두 35개의 단어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가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2점, 답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지엽적일 경우에는 1점을 주었고, 분명하게 틀린 대답을 하는 경우에는 0점을 주었다. 어휘문제

의 총점은 70점이었다.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로는 Kims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김홍근, 2001) 중에서 스트룹 검사를 실시하였다. 스트룹 검사는 색 명칭의 글자가 명칭과는 다른 색으로 이루어진 복합자극을 제시하여, 가능한 빨리 글자가 아닌 색의 명칭을 말하도록 하는 과제이다. 과제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읽혀지는 글자를 말하려는 것을 억제하고 색의 명칭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색의 명칭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룹 검사는 주의와 억제기능이 잘 반영되는 검사로 알려져 있다(Milham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스트룹 검사의 세 가지 과제 중에서 가장 높은 주의와 관리기능이 요구되는 과제인 간접 시행의 수행시간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격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검사는 Costa와 McCrae(1992)가 개발한 NEO-FFI(NEO Five Factor Inventory)로 이경임(1995)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NEO-FFI는 신경증,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척도의 문항은 모두 60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성격특성으로 알려진 외향성과 친화성을 측정하는 24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친화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58 이었고, 외향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1이었다.

대인관계만족도

김동직과 한성열(1998)이 개발하고 최인근(2008)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만족도 척도는 타인과 따뜻한 온정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정서 표현적 측면이 강조되는 성향을 알아보는 친밀성, 감정이입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동기요인으로 타인에게 온정성과 동정을 느끼는 경향을 알아보는 공감성, 집단에 참여하고 타인들과의 화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성향인 친화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문항은 모두 12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2였다.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고 박정현과 서은국(2005)이 번안한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모두 5문항으로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2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회활동 참여정도

선행연구에서 노인들의 대인관계만족도와 관련이 있거나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김미혜, 신경림, 2005; 이주일, 정지원, 이정미, 2006)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으로 만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경제력, 건강상태, 따로 사는 자녀와의 연락정도, 이웃과의 접촉정도, 가까운 친구와의 만남정도, 친목모임 참여정도, 여가활동 참여정도 등을 질문하였다.

절차

복지관에 안내된 모집공고를 보고 참가를 원하는 지원자가 별도의 실험공간으로 찾아오면 먼저 보조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참가자가 직접 읽고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읽고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몇몇 소수의 참가자들은 설문을 읽어주고 답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자료는 타인의 시선 의식이나 주의력 저하 등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설문이 끝나면 일대일로 마음읽기 검사와 어휘검사 그리고 실행기능검사를 실시하였다. 마음읽기 검사의 모든 과제는 문장을 직접 읽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노인들의 집중력과 이해력의 저하 그리고 흥미 저하를 우려하여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반신 모습을 삽화로 보여주며 구연하는 방식으로 들려주었다(그림 1). 또한 참가자가 중간에 이야기를 놓쳤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몇 번이고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어 이야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오답을 하게 되는 것을 최대한 통제하였다. 마음읽기 검사가 끝나면 어휘검사와 실행기능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에 소요된 총 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였다.



그림 1. 과제와 함께 제시한 삽화의 예

결 과

참가자들의 전체 과제 수행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마음읽기과제와 스트룹과제에서 나타났는데, 마음읽기과제의 수행을 보면 60대, 70대, 80대 순으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_{(2,100)}=3.88$, $MSE=2.89$, $p<.05$). Bonferroni 방법을 이용한 사후검증결과 60대와 80대의 수행차이가 .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능력을 통제한 후에는 마음읽기과제에서의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스트룹과제의 수행 시간은 60대가 제일 빨랐고, 이후 70대, 80대 순으로 늦어졌는데, 집단 간 수행시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_{(2,100)}=4.84$, $MSE=41.88$, $p<.05$). Bonferroni 방법을 이용한 사후검증결과 60대와 70대의 수행차이가 .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통제과제, 어휘검사, 친화성, 외향성, 대인관계만족, 그리고 삶의 만족에서는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음읽기 능력과 인지적, 성격적 특성과의 관계

노년기에 나타나는 마음읽기 능력의 개인차는 인지능력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성인 친화성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마음읽기과제와 통제과제, 어휘검사와 스트룹과제, 그리고 친화성점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분석 결과 마음읽기과제 수행 점수는 어휘검사 점수와 정적상관이 나타났고($r=.23$, $p<.05$), 스트룹과제 수행시간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나($r=-.29$, $p<.01$), 친화성 점수와는 어떤 상관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마음추론을 요구하지 않는 통제과제의 수행은 어떤 특성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마음읽기과제와 친화성간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인지적 특성의 영향이 혼입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어휘검사와 스트룹과제에서의 수행시간을 통제한 후 마음읽기과제와 친화성간의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서

표 2. 노년집단의 과제 수행 점수의 평균 및 차이검증: ()안은 표준편차

	60대	70대	80대	F
	(N=31)	(N=60)	(N=12)	
마음읽기과제	9.35 (1.02)	8.58 (1.88)	7.83 (2.29)	3.88*
통제과제	2.23 (0.72)	2.35 (0.73)	2.67 (0.65)	1.63
어휘검사	33.42 (10.53)	29.15 (10.74)	29.00 (10.25)	1.77
스트룹과제	25.26 (4.48)	29.47 (6.99)	29.90 (7.62)	4.84*
친화성	42.84 (5.82)	43.15 (4.50)	42.83 (3.01)	0.53
외향성	42.29 (5.15)	43.73 (6.08)	43.00 (4.45)	0.68
대인관계만족	40.52 (5.78)	41.92 (6.68)	42.75 (3.62)	0.77
삶의 만족	22.03 (5.00)	21.62 (6.48)	25.92 (4.96)	2.67

* $p<.05$

표 3. 노년집단의 마음읽기과제와 인지적, 성격적 특성의 단순상관 및 편상관분석

통제변인		어휘검사	스트룹과제	친화성
	마음읽기과제	.23*	-.29**	-.00
	통제과제	.08	.08	-.07
어휘검사 & 스트룹과제	마음읽기과제			-.04
	통제과제			-.00

* $p < .05$, ** $p < .01$

표 4. 노년집단의 마음읽기과제에 대한 인지적 특성의 다중회귀분석

	β	t	R^2	F
어휘검사	.19	1.96		
스트룹과제	-.26	-2.72**	.12	6.71**

** $p < .01$

도 역시 마음읽기과제와 친화성 간에는 어떠한 상관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음읽기과제 수행이 어휘검사와 스트룹과제 수행과의 상관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 특성이 마음읽기과제 수행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마음읽기과제 수행 점수를 준거변인으로 하고 어휘검사와 스트룹과제 점수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입력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분석 결과 스트룹과제의 수행시간만이 마음읽기과제 점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72, p < .01$). 이 모형의 마음읽기과제 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1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6.71, p < .01$).

마음읽기 능력과 사회적 적응의 관계

마음읽기를 잘하는 노인들이 실제로 사회적 적응도 잘하는지 알아보고자, 마음읽기과제

수행 점수와 대인관계만족도 점수 그리고 삶의 만족도 점수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인관계만족도는 마음읽기과제 수행점수와 어떠한 상관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삶의 만족도 점수와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26, p < .01$). 즉, 마음읽기를 잘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어떤 심리사회적 특성이 대인관계만족도나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외향성, 친화성, 교육기간, 건강, 경제상태, 자녀와의 연락정도, 이웃과의 접촉빈도, 가까운 친구와 만남정도, 친목활동 참여정도, 여가활동 참여정도간의 스피어만 rho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그 결과 대인관계만족도는 교육기간, 친구연락, 친목참여, 친화성, 외향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각각 $\rho=.26, p < .05$; $\rho=.22, p < .05$; $\rho=.29, p < .01$; $\rho=.29, p < .01$; $\rho=.64, p < .01$). 삶의 만족도는 마음읽기과는 부적상관을 보였고($\rho=-.21, p < .05$), 그

표 5. 노년집단의 사회적 적응도와 심리사회적 특성 간의 스피어만 rho 상관분석

	대인관계 만족도	삶의 만족도
마음읽기과제	-.07	-.21*
교육기간	.26*	.18
건강	-.02	.09
경제	.16	.28**
자녀연락	-.05	.07
친구연락	.22*	.13
이웃접촉	.19	.19
친목참여	.29**	.21*
여가참여	.04	-.06
친화성	.29**	.23*
외향성	.64**	.40**
대인관계만족도		.50**

* $p < .05$, ** $p < .01$

밖에 경제, 친목참여, 친화성, 외향성 그리고 대인관계만족도와 정적상관을 보였다(각각 $\rho = .28, p < .01$; $\rho = .21, p < .05$; $\rho = .23, p < .05$; $\rho = .40, p < .01$; $\rho = .50, p < .01$).

요약하면, 학력이 높고, 친구와 자주 만나며, 친목참여를 많이 하고, 친화성과 외향성이 높은 노인일수록 대인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상태가 좋고, 친목참

여를 많이 하며, 친화성과 외향성이 높고, 마음읽기는 잘하지 못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인관계만족도가 높은 노인은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노인들의 사회적 적응에는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대인관계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그리고 마음읽기 능력, 성격특성 외에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 만족도에는 외향성과 친목참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각각 $t = 8.09, p < .001$; $t = 2.15, p < .05$), 기타 마음읽기 능력과 학력, 건강, 경제, 자녀와의 연락정도, 친구와의 만남정도, 이웃과의 접촉정도, 친목참여, 여가참여, 친화성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4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42.67, p < .001$). 삶의 만족에는 대인관계만족도와 마음읽기 그리고 경제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각각 $t = 5.09, p < .001$; $t = -2.42, p < .05$; $t = 2.41, p < .05$), 학력, 건강, 자녀와의 연락, 친구와의 만남, 이웃과의 접촉, 친목참여, 여가참여, 친

표 6. 대인관계만족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B	β	t	R^2	F
외향	.67	.62	8.09***	.46	42.67***
친목참여	1.36	.16	2.15*		

* $p < .05$, *** $p < .001$

표 7. 삶의 만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B	β	t	R ²	F
대인만족	.42	.43	5.09***		
마음읽기	-.68	-2.02	-2.42*	.31	14.97***
경제	2.17	.20	2.41*		

* $p < .05$, *** $p < .001$

화성, 그리고 외향성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3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4.97, p<.001$).

논 의

본 연구에는 설문을 스스로 읽고 작성할 수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 103명이 참가하였다. 먼저 노년기의 마음읽기 능력의 개인차가 인지능력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또는 성격특성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마음읽기 과제와 어휘검사, 스트룹과제와 친화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년기의 마음읽기 능력이 연령에 따라 수행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능력을 통제한 후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최현옥과 김혜리(2012)의 성인기 마음읽기의 발달적 변화를 알아본 연구에서 성인기 동안에 마음읽기과제 수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친화성이 높은 노인이 마음읽기 과제 수행을 더 잘하는지 알아본 결과, 마음읽기과제 수행은 어휘검사와 스트룹과제 수행과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화성과는 어떤

상관도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들의 다양한 인지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인지능력을 통제하고, 마음읽기와 친화성과의 관계를 알아본 후에도 역시 상관도 나타나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노인들의 마음읽기 능력과 친화성이 무관하게 나타난 이유가 ‘관심’과 ‘노력’의 차이가 아닌 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마음읽기 능력도 더 좋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관심은 높아도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노력을 하면서까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마음읽기를 잘하는 노인들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자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 이면서 주변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관계를 축소시켰을 수도 있다. 그럼으로 인해 마음읽기와 친화성의 상관도 노년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수 있다. 실제로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Nettle과 Liddle(2008)의 연구에서 마음읽기와 친화성은 .48의 상관을 보였

으나, 평균 34세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Ferguson과 Austin(2010)의 연구에서는 .23의 상관관이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 외에 마음읽기와 친화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 단정적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으나, 마음읽기와 친화성의 관계가 어찌면 연령에 따라 점점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점은 친화성에 대한 '자기보고 평정'의 문제이다. 마음읽기 능력은 과제를 통해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친화성은 설문 을 통한 자기보고로 평가되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친화성 정도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노인은 자신이 매우 친화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노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지각과 실제 특성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타인평정이나 사회평정이 함께 측정될 수 있다면 친화성과 마음읽기 능력간의 보다 정확한 관계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마음읽기 능력이 뛰어난 노인들은 사회적 적응도 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음 읽기과제 점수와 대인관계만족도 그리고 삶의 만족도간의 상관관이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마음읽기를 잘하는 노인들은 다른 사람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음으로써 대인관계만족도가 높고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마음 읽기와 대인관계만족도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마음읽기와 삶의 만족도간에는 오히려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마음읽기를 잘할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읽기와 삶의 만족도간에 부적 상관관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관계 축소와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음읽기를 잘하는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읽기를 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고 이해하여 주위 사람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관계의 단절과 축소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마음읽기를 잘하는 노인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젊었을 때의 활발한 상호작용의 추억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잘 읽고 이해하지만, 나이드는 현재로써는 주위에 지속할 관계가 별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마음읽기를 잘하는 노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관계 축소와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며, 삶의 만족도 역시 오히려 낮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적응과 만족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알고 그에 맞는 적절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어린 아동의 경우 마음읽기를 잘하는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더 수동적이고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alonde & Chandler, 1995; Peterson & Siegal, 2002) 즉, 마음읽기를 잘하는 아동은 또래의 마음을 읽고 그에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읽기를 잘하는 노인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고 그에 맞게 적절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 가능한 '능력'이 곧 '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특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이해하는 노인들로 하여

금 오히려 스스로 관계를 위축시키게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마음읽기를 잘하는 노인들은 이웃과의 접촉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부록 1). 결국 마음읽기를 잘하는 노인들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스스로 관계에서 물러나며, 그로 인해 삶의 '만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린 아동의 경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사회적 적응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또래관계에서 거부된 아동들은 마음읽기를 못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김아름, 김혜리, 2009; Badenes, Estevan, & Bacete, 2000; Peterson & Siegal, 2002). 그러나 나이트 노인들의 경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장점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꼭 재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마음읽기 능력 외에 사회적 적응도를 설명하는 심리사회적 특성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기 위해 조사한 변인들로는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 만족도나 여가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각종 사회활동 참여정도(박민서, 조규범, 2003)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건강과 경제상태(김미혜, 신경림, 2005) 그리고 성격요인으로 외향성과 친화성을 사용하였다(임창희, 2004; Mroczek & Spiro, 2005). 먼저 대인관계만족도는 교육기간, 친구와의 연락, 친목참여정도, 그리고 성격특성인 친화성과 외향성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고, 친구와 자주 연락하며, 친목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친화성과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 대인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향성이 높거나 친목모임에 참여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삶의 만족도는 먼저 마음읽기와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그 밖에 경제상태나 친목참여정도, 그리고 친화성과 외향성이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변사람들의 마음상태에 민감하지 않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그리고 경제상태가 좋고, 친목활동을 많이 하며, 친화성과 외향성이 높은 성격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또 대인관계만족도가 높은 노인들의 경우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마음읽기 능력을 인지적 관점이 아닌 성격특성의 관점으로 접근한 것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마음읽기 능력과 인지적 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본 것이고, 마음읽기 능력과 성격특성의 관계를 알아본 것은 Nettles과 Liddle(2008)의 연구나 Ferguson과 Austin(2010)의 연구 외에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이들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마음읽기 능력과 친화성이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심은 있으나 더 이상 마음을 읽고 이해하려는 실제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 노인 특유의 '관심'과 '노력'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인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재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마음읽기 능력과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본 보기 드문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노인들의 마음읽기 능력이 오히려 노인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음읽기 능력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Bosacki & Astington, 1999; Koole, Jager, van den Berg,

Vlek, & Hofstee, 2001; Lalonde & Chandler, 1995; Peterson & Siegal, 2002; Walker, 2005)과는 상반된 결과인데, 이것이 노년기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인지 아니면 성인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결과인지는 청년집단이나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재선, 김혜리, 양혜영, 김경미, 정명숙, 이수미, 최현옥 (2008). 중학생의 마음이해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2), 17-33.
- 김동직, 한성열 (1998).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71-93
- 김미혜, 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김아름, 김혜리 (2009). 또래지위에 따른 마음읽기 능력의 차.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149-169.
- 김혜리, 이숙희 (2005). 인기있는 아들은 마음읽기를 잘하나?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1-18.
- 김홍근 (2001). Kims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 대구: 도서출판 신경심리.
- 남송이 (2008). 대학생과 정상 노인에서 마음이론 능력과 전두엽 기능의 관계. *한림대학교석사학위청구논문*.
- 박민서, 조규범 (2003).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3(1), 287-303.
- 박정현, 서은국 (2005). 사람의 내-외적인 모습에 두는 상대적 비중과 행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19-31.
- 염태호, 박영숙, 오경자, 김정규, 이영호 (1992). K-WAIS 실시요강. 한국가이던스.
- 이경임 (1995). 한국인의 NEO-PI-R 요인 구조와 부적응 집단 프로파일. *부산대학교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주일, 정지원, 이정미 (2006). 미국 거주 한인 노인과 국내노인 간 행복감의 차이 및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169-203.
- 임창희 (2004). 노인의 생활특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최인근 (2008). 노인의 여가 활동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최현옥, 김혜리 (2008). 청소년의 마음이해 능력과 사회적 능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1-18.
- 최현옥, 김혜리 (2012). 청년기와 성인기의 마음읽기 능력의 발달적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3), 89-105.
- Astington, J. W., & Jenkins, J. M. (1995). Theory of mind development and social understanding. *Cognition & Emotion*, 9, 151-165.
- Badenes, L. V., Estevan, R. A. C., & Bacete, F. J. G. (2000). Theory of mind and peer rejection at school. *Social Development*, 9(3), 271-283.
- Bosacki, S., & Astington, J. W. (1999). Theory of Mind in Preadolescence: Relations Between Social Understanding and Soci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8(2), 237-255.
- Carlson, S. M., & Moses, L. J. (2001). Individual

- Differences in Inhibitory Control and Children's Theory of Mind. *Child Development*, 72(4), 1032-1053.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Manual for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NEO-FFI)*.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Ferguson, F. J., & Austin, E. J. (2010). Associations of trait and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with performance on Theory of Mind tasks in an adult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 414-418.
- German, T. P., & Hehman, J. A. (2006). Representational and executive selection resources in 'theory of mind': Evidence from compromised belief-desire reasoning in old age. *Cognition*, 101(1), 129-152.
- Happé, F. G. E. (1994). An advanced test of theory of mind: Understanding of story characters' thoughts and feelings by able autistic, mentally handicapped and normal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4, 129-154.
- Happé, F. G. E., Winner, E., & Brownell, H. (1998). The Getting of Wisdom: Theory of Mind in Old Age.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358-362.
- Jenkins, J. M. & Astington, J. W. (2000). Theory of Mind and Social Behavior: Causal Models Tested in a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6(2), 203-220.
- Jensen-Campbell, L. A., Adams, R., Perry, D. G., Workman, K. A., Furdella, J. Q., & Egan, S. K. (2002). Agreeableness, extraversion, and peer relations in early adolescence: Winning friends and deflecting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3), 224-251.
- Judge, T. A., Higgins, C. A., Thoresen, H. C. J., & Barrick, M. R. (1999).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general mental ability, and career success across the life span. *Personnel Psychology*, 52(3), 621-652.
- Koole, S. I., Jager, W. van den Berg, A. E., Vlek, C. A. J. & Hofstee, W. K. B. (2001). On the Social Nature of Personality: Effects of Extraversion, Agreeableness, and Feedback About Collective Resource Use on Cooperation in a Resource Dilemma. *Psychology Bulletin*, 27(3), 289-301.
- Lalonde, C. E., & Chandler, M. J. (1995). False belief understanding goes to school: on the social-emotional consequences of coming early or late to a first theory of mind. *Cognition and Emotion*, 9, 167-185.
- Leslie, A. M., Friedman, O., & German, T. P. (2004). Core mechanisms in 'theory of mind'.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8(12), 528-533.
- Maylor, E. A., Moulson, J. M., Muncer, A., & Taylor, L. A. (2002). Does performance on theory of mind tasks decline in old ag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3, 465-485.
- McKinnon, M. C., & Moscovitch, M. (2007). Domain-general contributions to social reasoning: Theory of mind and deontic reasoning re-explored. *Cognition*, 102(2), 179-

- 218.
- Milham, M. P., Erickson, K. I., Banich, M. T., Kramer, A. F., Webb, A., Wszalek, T., et al. (2002). Attentional Control in the Aging Brain: Insights from an fMRI Study of the Stroop Task. *Brain and cognition*, 49, 277-296.
- Mroczek, D. K., & Spiro, A. III. (2005). Change in Life Satisfaction Duri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89-202.
- Nettle, D., & Liddle, B. (2008). Agreeableness is Related to Social-cognitive but Not Social-perceptual, Theory of Mind.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2, 323-335.
- Paal, T. & Bereczkei, T. (2007). Adult theory of mind, cooperation, Machiavellianism: The effect of mindreading on social rel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541-551.
- Peterson, C. C., & Siegal, M. (2002). Mind-reading and moral awareness in popular and rejected preschooler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05-224.
- Slaughter, V., Dennis, M. J., & Pritchard, M. (2002). Theory of mind and peer acceptance in pre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45-564.
- Stone, V. E., Baron-Cohen, S., & Knight, R. T. (1998). Frontal Lobe Contributions to Theory of Mind.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0(5), 640-656.
- Sullivan, S., & Ruffman, T. (2004). Social understanding: How does it fare with advancing year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5(1), 1-18.
- Walker, S. (2005).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ory of Mind.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3), 297-312.
- Wang, Y., & Su, Y. (2006). Theory of mind in old adults: The performance on Happé's stories and faux pas stories. *Psychologia*, 49(4), 228-237.
- Watson, A. C., Nixon, C. L., Wilson, A., & Capage, L. (1999). Social interaction skills and theory of mind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386-391.
- 1차원고접수 : 2013. 10. 14.
수정원고접수 : 2013. 12. 02.
최종게재결정 : 2013. 12. 03.

Mindreading Abilities and the Social Adaptation in Late Adulthood

Hyeon Ok Choi

Research Institute of Human Mind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ei Rhee Ghim

Developmental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life satisfaction in geriatric population. The following tests were administered to 103 people over the age of 60: mindreading tasks and cognitive tasks, personality questionnaires measuring extroversion and agreeableness, and questionnaires measuring the amount of social participation in activities and social adaptation. The analysis revealed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mindreading abilities and cognitive abilities, but was not correlated with agreeableness. Additionally, mindreading abilitie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life satisfaction. Furthermore, life satisfa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greeableness, extroversion, economic status, and the amount of social participation. It was expected that older people who were good mindreaders would demonstrate more appropriate social interactions and better social adaptation. However, it was found that an appropriate level of insensitivity to other people's mental states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life satisfaction. Society's widespread negative views about older people, and the loneliness from decreasing social relationships, are two possible explanations for these counterintuitive results.

Key words : Old age, mindreading, cognitive abilities, agreeableness, life satisfaction

부록 1. 노년집단 참가자의 과제 수행과 심리사회적 특성의 전체 상관분석표

	마음 읽기	나이	학력	어휘	스트룹	친화성	외향성	건강	경제	자녀 연락	친구 연락	이웃 접촉	친목 참여	여가 참여	대인 만족
나이	-.16														
학력	.05	-.14													
어휘	.24*	-.14	.55***												
스트룹	-.29**	.13	-.11	-.19											
친화성	.04	.08	.11	.06	-.05										
외향성	-.02	.11	.13	.08	.05	.38***									
건강	.03	.03	.06	.08	-.11	.27**	.11								
경제	-.02	-.08	.13	.16	-.06	.15	.20*	.10							
자녀연락	-.02	-.19	.01	.12	-.07	-.00	-.09	.11	.07						
친구연락	.01	.11	-.08	.01	-.01	.11	.21*	.13	.17	.16					
이웃접촉	-.21*	-.01	-.09	-.17	.06	.02	.17	.10	.15	.25*	.06				
친목참여	.00	.19	.05	-.01	-.01	.23*	.21*	.09	.24*	.01	.19	.21*			
여가참여	.13	.07	-.16	-.15	-.15	.01	.08	-.02	.03	-.12	-.07	-.08	-.16		
대인만족	-.07	.11	.26**	.24*	.06	.29**	.64***	-.02	.16	-.05	.22*	.19	.29**	-.04	
삶의만족	-.21*	.09	.18	.04	.02	.23*	.40***	.09	.28**	.07	.13	.19	.21*	-.06	.50***